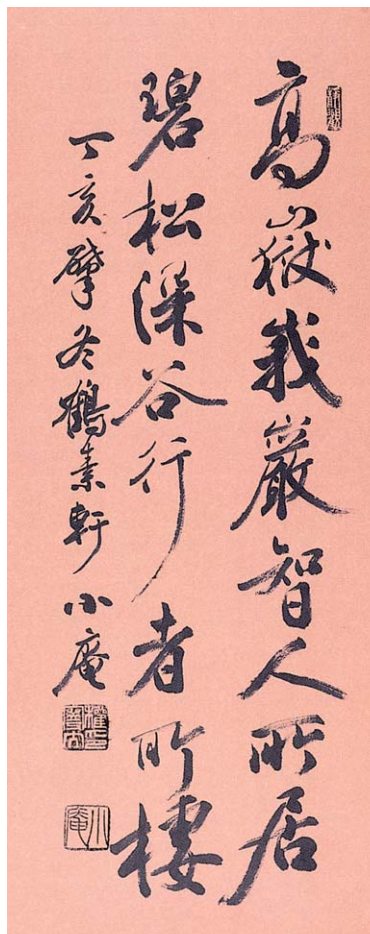


# 붓끝에 실린 '수행자의 향기'

추공 권영대 서예전 11일까지 백악미술관서



<고악벽송(高嶽碧松)>. '깊은 산 험한 바위는 지혜있는 이의 거처할 곳이요 푸른 숲 깊은 골짜기는 수행하는 이의 있을 곳이라.' <발심수행장> 중에서.

'빈 산 옛 절간에 목련이 홀로 피어 있네. 동봉(東峯)에 달 오르자니 열경(悅卿)이 와 있는 듯이.'

추공 권영대 선생은 서울 인사동 백악미술관에서 6월 11일까지 서예전을 연다. 오세암에 홀로 핀 목련처럼 고요한 절간이 좋아 남양주 불암사에 기거하며 묵향을 즐겨오던 유유한 행서(行書)의 6년만의 외출이다.

그래서인지 소암추공(小庵秋公)이라는 선생의 아호(雅號)가 매화당 김시습 선생의 '오세암시(五歲庵詩)와 많이 닮았다'고 여겨졌다. 일면(불암사 회주) 스님과의 인연도 남다른 선생은 불암사 '거사립회'의 고문이기도 하다. 지장전과 장경각의 현판은 물론 국내 사찰 30여 곳에 부처님 말씀을 비롯한 주련(柱聯)을 썼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선생의 필서를 도자기 위에 음각으로 새긴 '법성계(法性偈)'로도 만날 수 있다.

선생은 "구운 도자기에 먹이 아닌 흙물로 써내려 가야 하기 때문에 붓끝이 매끄럽지 않다. 화선지 하고는 색다른 느낌이 난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10세부터 한학을 배웠고 18세부터 오늘까지 서예로써 구도의 생애를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해로 만 67세를 맞은 추공선생의 정신세계가 붓 끝의 울림으로 한 획 한 획 번져 나간다. (02)734-4205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 한국현대 미술 '새 장' 연다

이영미술관 개관 기념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영인미술관에서 8월 31일까지 한국 회화사의 전환점을 만든 대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한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비전을 제안하는 개관 기념전이다.

특히 고구려 벽화를 비롯해 불화·단청·민화·무속화로 우리 민족의 혼을 화려한 오방색으로 재현해온 박생광(1904~1985) 화가의 작품과 만나는 뜻 깊은 기회다. 더불어 전혁림, 이경성, 정상화 등의 대표작을 통해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미술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다. 한용진 등 지역 미술인들의 조형물 설치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예술상도 소개한다.



박생광작 <토함산의 해돋이>.

108번의 삶과 죽음을 108개의 모니터를 활용하여 미디어아트로 표현한 아티스트 김현철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간 흘러온 한국 현대 미술의 가능성과 생명력을 모색한다. (031) 213-8223 가연숙 기자

## 리뷰 김진선 강원도 도지사 사진展 '소'

소와 강원도사람의 '닭은꼴 찾기' 첫 전시



김진선 지사

아이와 소를 찾아 나섰다. 길에서 소의 발자국을 보고 소의 뒷모습을 본다. 소의 몸통을 보고 고삐를 잡아 길들이기를 한다. 마침내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며 집으로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 온 다음 아이는 소를 잊어버린다. 그리고 스스로 자갓거리로 들어가 세상살이의 일부가 된다. 심우도(壽牛圖)다.

사진 찍기를 좋아했던 고등학생이 3선 강원도지사가 되기까지의 시간. 그 시간을 소가 함께 걸었다. '심우(壽牛)'의 구도심으로 살아 온 김진선 도지사의 곁에 소가 있다. 그 소를 길들이어 오는 동안 지천명의 나이를 넘어 썼고 그 간 길들이 온 소의 모습을 대중들 앞에 내놓았다.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5전시실에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월간 <사진예술향>의 초대전으로 열린 그의 첫 번째 사진전 '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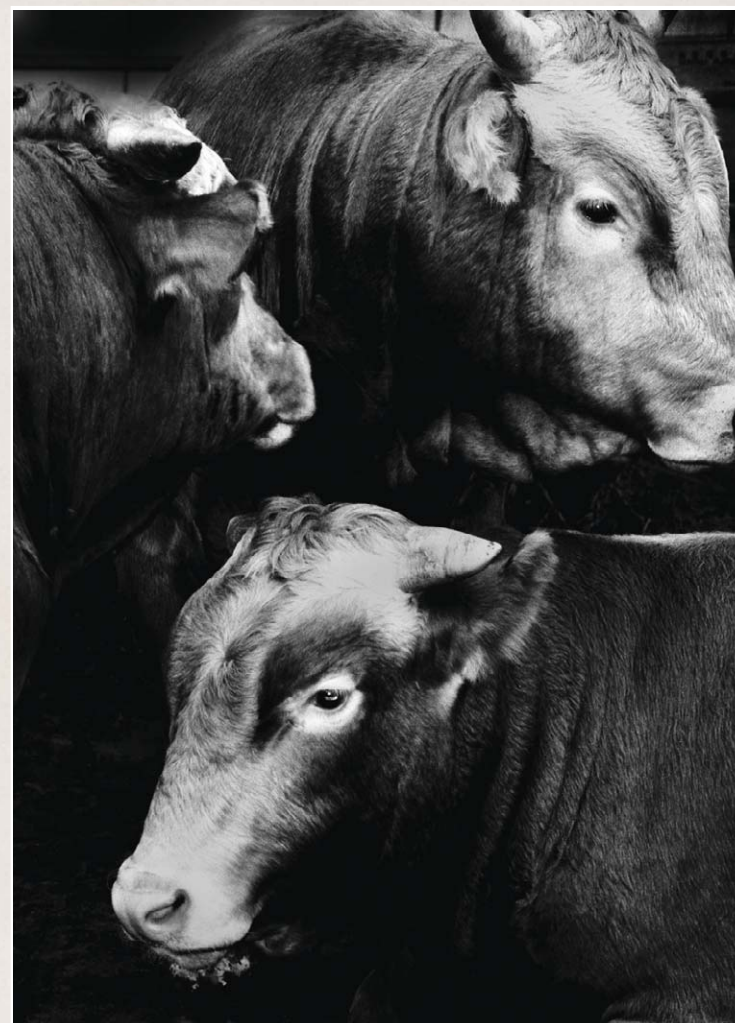
그는 소와 강원도인 그리고 사진을 하나로 보았다. 키워드는 '정직'이다. 농촌을 바라보는 객장감 언저리의 낭

만이나 풍경보다는 소의 머리와 몸통을 바짝 끌어당겨 놓은 흑백사진은 수다스럽게 소를 예찬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소처럼 우직하게 꼭 필요한 말, 꼭 하고 싶은 말만 전한다. 미국 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이 바람파 수 만개의 촛불로 밝혀지는 동안 전시실에 걸린 강원도지사의 소들은 그렇게 침묵으로 더 많은 말을 하고 느린 걸음으로 더 긴 시간을 견고 있었다.

사진작가로서의 김진선은 무엇을 보았을까? 소를 찾아 나선 아이의 마음을 읽는 일은 바로 '작업'에 비친 그의 마음을 읽는 일이 될 것이다. 그의 영감에 들어 온 소는 도구로서의 소가 아니라 인간과 상생하는 존재다. 그는 뚜렷한 명암의 대비를 '주무기'로 소의 깊고 선한 눈망울을 강조하고 있는 그대로의 몸통을 드러냈고 혼자 있기 보다는 무리 속에 있는 개체들을 표현했다.

순리와 이치에 순응하는 것을 삶의 지순한 가치로 여긴 공직자로서의 작가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본 것은 소이고 소의 품성에 비친 인간이다. 소를 길들이 다음 올라타고 피리를 불며 집으로 돌아오는 유유자적자를 통해 강원도 사람의 진면목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김진선 도지사의 '소찾기'는 그가 자신의 고향인 강원도에서 피리를 불며 산길을 돌고 돌아오는 유유자적자를 통해 강원도 사람의 진면목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의 '심우도'는 사진이라는 통로를 통해 끊임없이 그려질 것이다.

임연대 기자 mian1@hanmail.net

## 마음대로 놀다보니 창의력 '쑥쑥'

마포아트센터 갤러리 맥 '어린이 체험놀이터' 진행

"다양한 재료를 통한 연상놀이를 우리 아이 창의력도 쑥쑥 자라요."

언어자극·소리자극·촉감자극·시각자극 등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이 표현될 수 있는 풀뿌리 복지문화공간이 눈길을 끈다. 7월 6일까지 만 4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마포아트센터 갤러리 맥에

서 진행되는 체험놀이터이다.

선생님의 안전지도 아래 아이들이 서로 협동하여 조형물을 만든다. 나뭇가지로 만들어진 자동차도 타고, 나무껍질로 만들어진 기린을 직접 만져보면서 '나는 무엇을 만들어볼까' 생각한다.

자연·재활용·영상을 주제로 만든 작

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직접 만져보면서 상상의 자유로움을 맘껏 표현할 수 있다. 흙·짚·나뭇가지 등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하면서 어린이 스스로 자신만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작품 감상·만들기·놀이의 3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지루해하고 오랜 시간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눈높이로 다가간다. (02)3274-8502

가연숙 기자



▶마음대로 놀이터에서 예술체험을 하는 어린이들의 모습.

**복상불소영**  
**장량장가**  
**의식식사용도**

실물크기(소) 3.5×5cm (중) 5×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불사인연 공력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 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8mm×10mm×12mm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예)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병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가로, 세로 74cm (중) 35×50cm (대) 42×65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였으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 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숙독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숙독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숙독(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배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원적외선 "열"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배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차신
  - 오심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농협 170-12-056037 정영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